

비워내는 연습

많이 담는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담고 채운다고 해도 넓은 마음이 한없이 풍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워내는 것이 담아두는 것보다 편할 때가 있습니다.

봄의 파릇함을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여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가을의 낭만을 한없이 즐기고 싶다 해서
가슴 시린 겨울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고이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고맙다〉(전승환 지음, 북로망스 펴냄)

